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광주 서·광산구청장, 전남 목포시장

■광주 서구청장 후보

	김종식 (58) 우리당	전주언 (58) 민주당	강기수 (54) 민노당	신현구 (46) 무소속
현직	서구청장	정당인	우리겨레하나되기대표	정당인
학력	서울대	전남대 행정대학원	조선대 산업대학원	서울대 상대
주요경력	광주시 경제통상국장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	민주당광주서구을위원장
병역	일병 의가제대	이병 제대	미필	병장 만기제대
재산	25억3천만원	6억9천만원	4천200만원	2억원
주요공약 (3가지)	탄약고 이전·그린벨트 해제 특색있는 교육지구 조성 서창역 주변 역세권 개발	5대권역별 특성화발전 최고의 교육·복지환경조성 문화·웰빙도시 구축	공직사회개혁·부정부패추방 사회적 약자 배려 주민숙원사업 해결	미래형 교육도시조성 친환경 모범도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이상갑 (38) 우리당	전갑길 (48) 민주당	이승남 (36) 민노당	송병태 (68) 무소속	김익주 (43) 무소속
변호사	정당인	정당인	광산구청장	대성자동차운전학원	
서울대 정치학과	조선대 대학원	전남대 국사교육과3년제적	전남대 행정대학원	단국대 행정대학원	
민변광주·전남사무국장	제16대 국회의원	육아조합 어깨동무 조합장	광산구청장	호남대학교 겸임교수	
공군 상병제대	병장 만기제대	병장 만기제대	병장 만기제대	중위 전역(학사장교)	
2억4천만원	3억6천400만원	5천500만원	7억2천500만원	7천만원	
실질적 주민소환제 도입 광주과학고 이전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운동	환경생태도시 건설 문화특구조성 경제도시 건설	비정규직·여성고용 지원센터 설치 송정미군기지 이전 수입쌀 판매하지 않기 협약체결	초일류 교육도시 기반강화 관광레저산업·체육시설 확충 노인요양실버타운 건립	문화관광도시구현위한 인프라구축 구도심권 활성화 권역별 상권 활성화	

■전남 목포시장 후보

	김정민 (53) 우리당	천성복 (43) 한나라당	정종득 (65) 민주당	박기철 (41) 민노당
목포대 교수	미래 2000 대표	목포시장	정당인	
서울대 대학원	광주 경상대	서울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목포지구당 청년부장	벽산건설 부회장	민노당목포시위원회위원장	
병장 만기제대	하사 제대	학보병	병장 만기제대	
300만원	1억4천400만원	12억5천799만원	파악 중	
김대중 관광운하 건설 크루즈 기항지 유치 국제활어유통 타운건립	목포대교 조기건설 및 삼학대교 조기착공 노인·장애우복지 관광자원등을 통한 소득증대	원도심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목포대교 완공	5월15일 3대과제를 매니페스토식으로 발표할 예정	

중앙·지역 인맥 풍부 '행정 전문가' 자부

■ 광주 서구청장

요직 두루 거치며 지역발전 기여
영어마을조성 등 교육 메카 육성

광주 서구청장 후보로는 열린우리당 김종식, 민주당 전주언, 민노당 강기수, 무소속 신현구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과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내무부와 광주시의 요직을 두루 걸친 행정 경험을 내세운다.

그는 "이정일 전 청장 시절 500억원이던 중앙 예산 지원 규모를 1천300억원까지 늘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는 세일즈 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LG노인복지회관 등 공공기관 유치 마무리, 마륵동 탄약고 조기 이설, 서창지역 그린벨트 해제, 외국어 마을 조성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공직생활 37년 중 35년을 광주시에서 근무할 정도로 광주 행정에 정통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그는 또 "광주비엔날레 창설에 기여했으며 광주가 경제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구정의 방향은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모토를 '행복 서구 건설'로 내세웠다. 서구를 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맥락을 같이 한다.

강 후보는 공무원 노조 출신으로 진보행정가를 꿈꾸며 출마했다. 공무원 노조 활동시 서구청 재난관리과에 재직, 열린우리당 김 후보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그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며 느낀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뜯어 고쳐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이끌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 후보는 '혁신 CEO'를 꿈꾸며 수년 동안 서구의 바닥을 다져온 인물. 그는 "오랫동안의 꿈을 전략공천이라는 미명 하에 한 순간에 짓밟아 버린 민주당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한화갑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 두 번의 대선 승리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는 "중앙무대에서 쌓은 국정운영의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사는 광산 건설 낙후지역 개발 심혈"

■ 광주 광산구청장

국회의원·구청장·변호사 등 경력
"진정한 자치시대 열겠다" 각오

광주 광산구청장에는 열린우리당 이상갑, 민주당 전갑길, 민노당 이승남, 무소속 송병태, 무소속 김익주 후보가 각각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출신의 이상갑 후보는 광주장애인복지협회 고문변호사,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 참여 자치, 잘사는 광산'을 건설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방의 토호세력과 유착, 온갖 비리를 양산해온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맡은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 3선 광주시의원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후보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모니터단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것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는 "각종 산업단지가 집약돼 있는 광산구가 호남권의 문화·산업의 중추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에 탄탄한 인맥을 갖춘 큰 인물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노당 이승남 후보는 군 제대 후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노동운동가. 그는 서민과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민노당에 입당,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18년동안의 학생·노동·시민운동을 통해 누구보다도 서민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서민이 잘 사는 광산'을 꿈꾸고 있다.

현직 청장의 프리미엄을 갖고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송병태 후보는 전문 행정인으로서 자질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는 "두 번의 민선 청장 재직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구민의 여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은 행정인,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치의 예속되는 지방정치 문화를 타파,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무소속 김익주 후보는 "4년 동안 구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광산을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구청장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청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구도심 지역격차 무안반도 통합 이슈

■ 전남 목포시장

원도심 활성화·균형발전 최선
지역 잘아는 '준비된 일꾼' 자임

광주 동구와 함께 '호남 정치 1번지'이자 민주당의 심장부라는 상징성 때문에 선거때마다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1년여만에 치러지는 이번 시장 선거는 지난해 4·30 보선 출마자들이 재격돌하는 양상. 민주당과 설욕을 다짐하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심과의 개발 격차에 따른 원(구)도심 활성화와 무안반도 통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정민 후보는 "도시계획·지역개발 전문가로서 25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신안, 영암, 해남을 한 데 묶는 연합시 건설을 제안했다. 수차례 실패한 무안반도 통합 대신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광역행정 업무와 투자유치 등을 전담할 연합시청을 별도로 둬 시너지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또 삼향천~폐선부지~죽교천을 잇는 김대중 관광운하를 건설, 원도심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종득 후보는 CEO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시장론'을 역설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1년간 동북아 해양·관광·물류 거점도시 건설을 위해 목포대교 착공, 신항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했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이제 목포가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서남권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오는 2007년까지 목포와 무안, 신안을 통합해 국제공항과 항구, 고속전철을 갖춘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고, 2단계로 2010년까지 영암과 해남까지 합친 광역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동당 박기철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방정치를 판갈이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와 빈곤과 차별이 없는 목포를 건설하는 출발점"이라며 폐쇄적인 도시계획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도시 전체를 유기적 생태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투자한다는 각오다.

한나라당 천성복 후보는 "제1야당이며 집권능력이 확실한 한나라당과 함께 목포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원도심 활성화,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목표대교 조기 건설 등을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